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조미료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다. 특히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릴 때 염분 섭취를 위해 필요하지만, 또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도 하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리잡아 왔다.

글 편집실

권력의 상징,

하얀 황금

Salt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 소금

소금은 짠 맛이 나는 백색의 조미료다.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며 수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으로 구성된다. 바닷물에는 약 2.8% 함유되어 있어 주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으며, 암염으로도 만들어진다. 나트륨은 우리 몸 속 혈액이나 세포 안에도 약 0.71%가 들어 있는데, 오랫동안 나트륨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피로해지며, 불안 증상까지 생긴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은 후추, 설탕과 함께 인류 문명과 함께했다. 소금은 경제, 독점, 전쟁, 도시의 성장 등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귀한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암염이 있는 지역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중세시대 베네치아는 소금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연안도시들과 전쟁을 벌였다.

선사시대부터 해안이나 염호, 암염이 있는 장소는 교역의 중심이 됐다. 소금을 팔아 번성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대표적이다. 작은 어촌이었던 베네치아는 가까운 해안에서 생산한 소금을 팔아 10세기 이후에는 풍족한 해양도시로서 변영했다. 소금광산 주변에도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됐다. 이런 마을과 도시는 소금으로 부를 축적했다. 잘츠부르크, 할레, 할수타트 같은 유럽의 수많은 강과 마을, 도시의 이름은 소금채취나 소금제조와 관련된 이름이다(hals와 Sal 모두 소금을 뜻하는 단어다). 또한, 급료를 의미하는 '샬러리(salary)' 역시 로마 병사들이 급료로 소금을 받은 데서 유래했다. 샬러드(salad, 원래 샬러드는 소금만 쳤다), 소스(sauce)와 살사(salsa), 소시지와 살라미(salami)도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sal)에서 유래했다.

황금과 동등했던 귀한 교역물품

육식을 주로 하는 문화권에선 소금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육식으로 소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육식을 주로 하는 서양인들은 한국인 보다 적게 소금을 섭취한다.

기록에 따르면 소금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역 상품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금을 얻고자 교역을 했다. 에티오피아나 나킬 지역의 거대한 소금평원에서 채취된 소금은 로마와 아랍과 인도까지 수출되었다. 로마인들은 테베레강 어귀 오스티아 해변에 거대한 제염소를



지었고 도로를 건설해 오스티아 해변에서 로마까지 소금을 수송했다.

소금은 세계 여러 무역들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슬람 문명을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사하라 사막에는 방대한 양의 소금이 묻혀 있었다. 반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국가들은 소금이 매우 귀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자리한 말리의 타우데니 광산의 암염은 8세기,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상인들에 의해 남쪽으로 건너가게 됐다.

다만, 이 길에는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1805년 타우데니로 돌아오던 낙타대상이 사고를 당해 2,000명의 인부와 1,800마리의 낙타가 갈증에 시달리다 죽기도 했다. 이렇게 위험한 여행 끝에 전해지는 소금은 같은 양의 황금과 맞교환될 정도로 비쌌다. 베르베르 상인들은 곡물, 말린과일, 직물, 기구 등을 주고 사하라 사막의 암염판과 교환했다. 그리고 그들은 암염판을 싣고 사하라 사막 남쪽 끝의 팀북투에서 서아프리카에서 나온 황금을 교환했다. 그리고 황금, 노예, 상아 등을 싣고 유럽으로 진출했다.

독점 그리고 어마어마한 염세

한편 역사 속에서 소금만큼 권력의 독점과 과세에 적합한 것은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 소금에 부과된 세금, 즉 염세는 믿을만한 세원이었다. 소금은 모두가 원하는 반면 대체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는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모두 관리하여 재정 수입원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자유롭게 유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염제와 관염제를 병행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다시 완전 전매제를 시행했고, 1961년에 염전매법이 폐지된 후, 중전의 국유염전과 민영업제로 양분됐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2000년부터 소금은 세금, 통행세, 관세의 형태로 정부의 수입원이 되었다. 로마의 세리들도 로마 시민들에게 염세를 부과했다. 중세 시대 유럽은 소금 광산이나 해안가의 제염소에서 소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나 수레에 통행세의 형태로 염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염세는 프랑스가 가장 심했다. '가벨'이라 불린 프랑스의 염세는 주요 국세 가운데 하나였지만

단순한 염세가 아니었다. 왕이 정한 가격대로 모든 남성, 여성,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금을 사야 하는 제도였다. 가벨이 가장 심했을 때는 소금 원가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되기도 했다.

1825년, 영국은 염세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서민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소금이 산업혁명과 함께 화학물질 제조에 중요해져 염세를 철회하라는 공장주와 제조업자들의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정화와 힘의 상징 그리고 미신

소금은 건강과 정력을 유지하는 힘의 상징이었다. 또한 신성함과 맹세의 상징이며, 칼이고 권력이었으며 부의 원천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고,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 자식을 팔기도 했다. 16세기에는 소금을 금보다 비싼 고급 사치품으로 여겨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에 소금을 듬뿍 넣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아울러 소금은 많은 문화권에서 신성시되기도 했다. 소금이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는 힘이 있다고

하여 고대인은 소금을 변함 없는 우정·성실·맹세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불변의 약속을 상징한다. 아랍인들에게도 소금은 약속이나 계약의 신성함을 의미했다. 그래서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겼다. 중세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으로 조리한 음식을 대접했다. 마야 문명에서는 소금을 치료용으로 썼고, 출산 전통제는 소금에 꿀을 섞어 만들었다.

소금이 가진 정화와 방부 특성 때문에 동양에서 소금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존재였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 뿌린 산실에서 태어나며, 태어나 맨 먼저 소금을 먹이기도 했다. 소금이 액귀나 병귀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집, 장가 갈 때면 가마바닥에 소금을 뿌려 신부를 앉히고 말 안장 아래 소금을 깔아 신랑을 앉혔다. 해코지하려는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재수 없는 사람이나 물건, 불길한 조짐이 있을 때도 소금을 뿌렸다. 이런 점은 중국, 일본도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악령이 소금을 싫어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소금을 담은 그릇을 문 양쪽에 놓은 가게를 흔히 볼 수 있다. 🐾

